



양계 안 테 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금년 발생한 HPAI 역학조사 결과 발표 최초 발생농장 산란계가 아닌 오리농장으로 밝혀져

지난 4월 1일 15만수 규모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병이 처음 확인된 HPAI가 42일간에 걸쳐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업계에 많은 피해를 가져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역학조사위원회(가금질병분과위)를 중심으로 금년에 발생한 HPAI의 유입원과 전파경로를 추적하여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에서는 HPAI H5N1 바이러스의 최초 유입원으로 철새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병원체의 유입시기는 3월 초, 최초 감염농장은 전북 김제 소재의 오리농장과 전북 정읍소재의 오리농장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총 신고(조사) 68건 중 33건의 HPAI가 발생하였으나, 발생농가와 역학적 관련농장의 추적조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가 총 65개 농장으로 최종 발표되었다.

정부에서 철새에 의한 국내 유입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동남아시아 국가 및 남중국 등 지역으로 남아했던 월동조류가 북상을 위해 국내 통과과정에서 발생지역에서의 서식이 확인된 시기와 발생시기가 일치한 점, 철새도래지 및 과거 발생지역원에서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HPAI 가 발생된 점, 동일시기에 우리나라와 일본 및 러시아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분석 결과 매우 근접한 99.7%의 상동성을 나타낸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최초 감염농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3년에도 충북 음성의 한 종계농장에서 국내에 처음 HPAI 발병이 확인 되었을 때에도 역학조사 결과 충남 천안의 한 종오리 농장이 최초 감염농장으로 밝혀졌던 것처럼 금년에도 최초 감염농장이 3월중에 감염되어 초기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졌던 오리농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두 농장이 위치한 곳도 농장주변에 저수지와 하천이 있어 야생조류와의 접촉 및 주변 환경오염에 의한 농장유입 가능성 이 컸던 곳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HPAI 바이러스가 도심지까지 파고들면서 폭발적으로 확산된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사육농장 간 전파와 비전문 사육농장 간의 전파로 구별하였는데 전문 가금류 사육농장의 전파는 전문 닭, 오리 사육농장 간에 사료차량, 출하 유통업자, 닭 수송차량 등의 인적, 물적 이동에 따

른 기계적 전파로 볼 수 있으며, 비전문 규모 사육농장의 전파는 재래시장에서 오염된 닭, 오리 등을 구입하거나 중계인(영세수집상)을 통해 판매된 소규모 사육 가든 식당, 가정, 동물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다.

현재 외국에서 지속적으로 HPAI 발생 사실이 보고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철새가 날아오는 철을 맞이하여 국내에서는 AI 위기상황을 '관심단계'로 1단계 상향조정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상시 방역체제에 돌입해 있다. 정부에서는 문제가 되는 오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회에서도 "농장내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화갈아신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철새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가장 큰 만큼 농가에서는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천수만, 군산 등 크고 작은 철새 축제가 한창이다. 국내에 연중 찾아오는 190여만마리의 철새를 막기는 사실상 역부족이다. 감염원이 농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농가들이 해야 할 임무 중의 하나인 것이다.

산란계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첫 단추 산란계 공동준비위원회 설치 등 새로운 국면 돌입

양계업계의 숙원 중의 하나는 양계 의무자조금 제도 정착이다. 지난 1992년 농어촌발전특별법에 의거 업계로서는 처음으로 자조금을 시작한 양계업계가 2002년 의무자조금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도입되면서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자조금 거출기관 지정, 거출비율 등의 현안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의무자조금이 시행된지 6년이 지나도록 그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임의 자조금으로 일관해 오던 산란계 의무자조금 사업이 지난달 7일 산란계 자조금 설치를 위한 공동준비위원회(위원장 이준동)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자조금거출 수납기관 지정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표류해 오던 산란계 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공동준비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가축사육수수 전수조사를 거쳐 대의원을 선출하는 부분까지 역할을 담당한 후 자조금 대의원에게 바통을 넘기게 된다.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의원 배정을 위한 채란계 사육수수 전수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이 내용이 취합이 될 경우 선거를 통해 빠르면 금년 내에 대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 축산자조금의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조에 의거 현재로서는 산란노계 도계장을 통해 거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자조금 조성 규모는 계란의 평균거래가격의 5/1000 이내에서 거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거래가격을 100원으로 보고 연간 100억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산출하면 최대 50억원 정도의 금액을 거출할 수 있으며, 노계에서 거출할 경우 연간 2,000만수의 노계가 출하되는 것으로 볼 때 수당 100원씩 거출한다고 가정하면 20억원의 금

액을 거출할 수 있게 된다.

산란계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향후 추진 일정을 보면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금년 중 실시하고, 자조금 거출 여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1차 대의원회를 2009년 1~2월중에 실시 하며, 자조금 관리위원회를 3월중에 구성하여 4월중 사무국을 설치, 본격적인 거출 및 소비홍 보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작이 반’인 것처럼 첫 단추가 잘 끊어져 일사천리로 업계의 숙원인 산란계 의무자조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양계관련 학회 역할과 방향 산학연이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기회제공을

최근 다양한 세미나 등 학술발표회가 개최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학자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학회들도 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쪽에 비중을 두어 발표되면서 농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일에 개최되었던 가금질병연구회 학술세미나에서도 닭 품종별 특징 및 사양관리를 발표내용에 넣는 등 질병과는 무관하지만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참석한 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성환에서 한국가금학회 학술발표회가 있었다. 학술발표회라 하면 농가들로서는 다소 소원해지는 느낌을 준다. 학술발표회는 1년에 봄과 가을로 두차례 발표가 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과거 몇 명의 임원들이 모여 논문을 발표하고 끝나는 그런 학술발표회가 아닌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여 업계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 자리매김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까지 농가들의 참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았는데 이는 학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농가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적다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발표되는 논문들이 농가들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과거와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무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특수 물질의 계란내 이행 정도, 다양한 물질급여에 따른 닭의 생리적 변화, 특정 사료물질의 영양적 가치 조명 등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비중이 모아졌다. 물론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현실과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가금학회는 지난 1973년 세계가금학회(WPSA) 한국지부 설립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가금학회는 신진과학자를 발굴하기 위해 가금학회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인재양성의 등용문을 위해 ‘학진등재학술지’로의 승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가금학회의 활동에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학자들의 현장에 맞는 연구가 조화를 이룰 때 양계전문가들의 많은 배출은 물론 양계산업이 보다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계**